

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도자료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YOU	
보도 일시	2025. 6. 17.(화)	배포번호	2025-14		
담당 부서	국립진주박물관	책임자	학예연구실장	진정환	055-740-0661
	학예연구실	담당자	학예연구사	허문행	055-740-0662

국립진주박물관-조선시대사학회 워크숍 공동 개최
- ‘암행어사’ 주제로 공동 연구 진행 및 업무협약 체결 -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은 6월 13일(금) 조선시대사학회(회장 이근호)와 하반기 특별전 ‘암행어사-백성의 곁에 서다’ 를 준비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선시대 법제사·사회사·고문서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암행어사(暗行御史)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워크숍은 한성대학교 권기중 교수의 조선시대 암행어사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재우 교수의 ‘일본 덴리대(天理大) 소장 ‘박문수 봉서(朴文秀封書)’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달아 허문행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학호남진흥원 조광현 책임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박범 교수, 정수환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의 발표에서 암행어사의 활동 양상과 관련 문화유산을 살펴보았다. 종합토론에서는 이근호 조선시대사학회장을 좌장으로 ‘암행어사와 지역과의 연관성’, ‘암행어사가 오늘날 주는 의미’ 등 전시 적용에 필요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워크숍을 주최한 국립진주박물관 장용준 관장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박물관이 준비 중인 특별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워크숍에 앞서 국립진주박물관은 2028년 개관 예정인 새 국립진주박물관 전시 공간 조성 준비를 위해 조선시대사학회와 ‘공동학술연구교류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전시·연구·공동 학술연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진주박물관 장용준 관장은 “이번 조선시대사학회와 업무협약 및 공동 워크숍이 계기가 되어 특별전은 물론 새 국립진주박물관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조선시대사학회 이근호 회장 역시 “두 기관의 이번 행사를 높이 평가하며, 국립진주박물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학회에 소속된 우수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진주박물관 허문행 학예연구사(055-740-06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사진 1



워크숍 사진 2



워크숍 사진 3



업무협약 사진

- * 국립진주박물관 장용준 관장(왼 쪽)
- * 조선시대사학회 이근호 회장(오른쪽)